



북한 기도회

2023년 01월





기도제목 1.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도 연 이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대동하고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둘러보는 장면을 공개하고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무인기 비행 상황 재구성

글라이더 형태
동체는 하늘색으로 도색했으며 2014년, 2017년에 발견된 무인기와 동일한 색상

북한 무인기 제원	속도 시속 약 100km	고도 약 3km	특징 = 2017년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글라이더형 소형 무인기(길이 1.8m, 날개 폭 2.4m)와 유사, 일부 개량된 모습 포함 = GPS 기능 장착, 자동 비행 추정
	동체 색 하늘색(보호색) 도색	날개 길이 2m(추정)	



기도제목 2.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감소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심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박해로 인하여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제정과 82연합지휘부의 활동 등 북한은 경제 제재와 방역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임을 확신합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성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11월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억류자 석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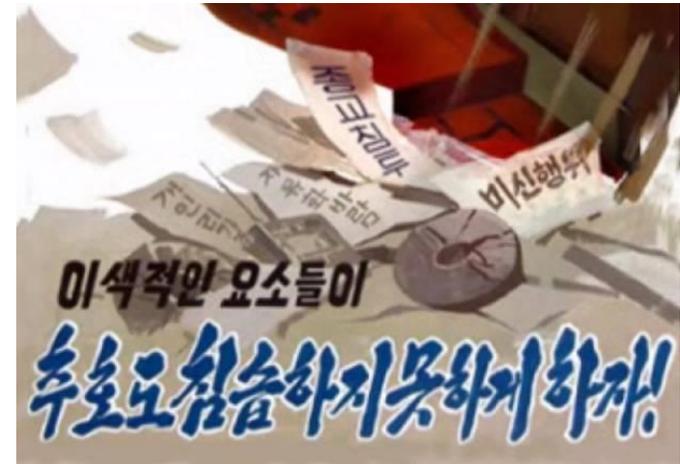


기도제목 4.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22년 한 해 동안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경제적 어려움과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등 오히려 북한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기독교 박해 등은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협상 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도록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억압과 군사적 위협이 아닌 인권 개선과 국가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상숭배와 인권 억압의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신앙을 이유로 무고하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들이 하루 속히 철폐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곡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1년 대비 18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독한 추위의 겨울은 주민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 겨울 북한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6. 중국의 북한 선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줄 곳 고수해왔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급속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격리 해제 등 관련 통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어 23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이 안정화되어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다시금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변화되는 선교 환경에 맞는 사역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7.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근 중국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동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여 명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안보리가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된 것입니다. 단동 외 지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까지 생각한다면 해외 북한노동자의 수는 상당히 대규모일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를 경험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얻은 이들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안목을 갖게 되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9.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